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최종 심의평

2023년 예술인 자립지원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사업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다원예술 등 여러 분야의 예술인 지원자가 모두 응모하였습니다.

우선 심의위원은 창작활동을 위한 대관료 지원사업인 만큼 대관 이외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심의에서 제외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분야를 중복 지원한 경우, 활동계획서의 내용이 이전 혹은 다른 분야 지원에 여러 차례 활용되어 작성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제출된 활동계획서가 예술활동에 기반한 대관 공간의 활동계획에 충실한지, 계획 실현의 가능성은 충분한지,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심과 지역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세부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많은 지원자가 기본적인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성실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지역사회에 협력예술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예술활동 공간에 목마른 예술인에 비해 창작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는 본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를 여실히 깨닫게 했습니다.

당연하지만, 창작활동 공간은 예술 활동이 배태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이번 창작공간 대관 지원이 여전히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술 생태계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많은 예술인 지원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이번 사업이 자신의 예술세계를 향해하는 데에 적으나마 따뜻한 격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3. 5. 17.

심의위원 전해수, 김영등, 박우성, 조두호, 홍은지